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 공격성, 사회불안, 페이스북 중독의 구조적 관계 분석

김혜원(金慧原)*

이지연(李之漣)**

논문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가 페이스북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격성과 사회불안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경기·충청 지역 고교생 345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보일수록 공격성이 높았고, 사회불안을 크게 느꼈다. 그리고 공격성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클수록 페이스북 중독 가능성을 보였다. 둘째,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페이스북 중독의 관계를 공격성과 사회불안이 각각 완전매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의 내현적 자기애가 페이스북 중독을 예측하는 단일 변인으로 유의하지 않고,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공격성과 사회불안을 높여 페이스북 중독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방향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내현적 자기애, 공격성, 사회불안, 페이스북 중독, 매개효과

I. 서론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가 스마트폰 사용의 67.3%를 차지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김보현, 서경현, 201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되는 SNS는 페이스북인 것으로 나타났고(노영, 2016; 이상호, 고아라, 20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현재

* 세명대학교 교양과정부 조교수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이지연 /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교수 /E-mail: becoming@incheon.ac.kr

페이스북 가입자수는 18억명을 넘어섰다(지니넷 코리아, 2017. 04. 27). 그런데 SNS 사용량이 증가하며 '카카오토티·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타인의 행복한 일상을 보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현상이 보고되었고, 이를 일컫는 '카·페·인'우울증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세계일보, 2017. 04. 16). Flores(2016)는 비록 타인이 올리는 게시물의 상당수가 편집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포스팅들의 정서적 파급력은 크고, 특히 10대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심각하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중독이 마약 중독과 유사한 수준의 뇌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매일경제, 2016. 02. 19). 사회관계망을 넓히고 타인과의 상호교류를 도와주는 페이스북 특유의 기능이 사회교류 및 타인과의 유대를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속성에 더해져 한국의 사용자들이 페이스북 중독에 더 취약할 가능성이 있고(고은영, 최윤영, 최민영, 박성화, 서영석, 2014), 특히 이러한 문제는 정보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는 청소년 집단에서 더 두드러질 수 있겠다(조남근, 양돈규, 2001).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중독 현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 페이스북 사용에 따른 부작용에 관심이 쏠리면서 페이스북 중독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고은영 외, 2014; 성요안나, 현명호, 2016; 이경탁, 노미진, 권미옥, 이희옥, 2013; 이상호, 2014; 이성준, 2013; 전범수, 이정기, 상윤모, 2014; Andreassen, Torshel, Brunborg, & Pallesen, 2012; Griffiths, 2012). 그러나 페이스북 중독에만 초점을 둔 연구가 많지 않고,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단순히 변인 간 상관 정도를 밝히거나 페이스북 중독에 영향을 주는 개별 변인을 살펴는데 치중되어 있어, 각각의 변인들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페이스북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페이스북 이용이 주로 스마트폰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스마트폰이 인터넷과 휴대폰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매체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스마트폰 중독, 인터넷 중독, 휴대폰 중독, SNS 관련연구를 토대로 페이스북 중독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실상 이러한 중독들은 모두 기존의 약물이나 마약 중독과 유사하게 스스로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정보기술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심신이 피폐해지고 사회적 병폐를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정보기술 중독'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Kranzler & Li, 2008), 초조·불안·짜증·예민한 반응 등을 동반하는 것이 특징이다(Andreassen et al., 2012; Brauser, 2013). 더욱이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 중독은 현재의 위험보다 잠재적 위험이 더 심각한데,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이를 이용하게 되면서 매체 이용습관이 더욱 만성화되기 쉽고, 따라서 다른 매체보다도 과몰입되고 중독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이상호, 고아라, 2013). 이와 관련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2011)은 TV와 신문을 멀리하며 청소년기를 보낸 젊은 층들이 인터넷이나 게임 등에 쉽게 중독되는 현상보다 SNS에 중독되는 것이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의 원인을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환경에서 사회적인 관계망 넓히기 등의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즐거움에 젊은 층들이 몰입

하게 되면서, 결국 '접속 중단'이 '사회와의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SNS 중독은 학생들의 학업의욕 및 성인들의 업무의욕 저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인 잠재적 손실로 전이될 가능성도 크기에(박웅기, 2013)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는 점차 페이스북 중독을 정신적인 치유대상으로 인정해가는 분위기고, 과도한 몰입이 페이스북 중독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언급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국내 스마트폰 및 인터넷 이용자의 20%만이 페이스북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페이스북 중독이 야기될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상호, 고아라, 2013). 따라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중독에 이르는 경로에 관한 학술적 연구가 미미한 상황(노영, 2016; 이상호, 고아라, 2013)에서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으로 청소년들이 페이스북 중독에 이르는 구체적인 기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중독 현상은 치료를 받은 후에도 1년 이내에 재발되는 비율이 80~90%에 이를 정도로 높다. 따라서 중독에 대한 적절한 치료적 개입을 위해서는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내고, 중독 증상으로 발현되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Shaffer, LaPlante, LaBrie, Kidman, Donato, & Stanton,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독의 과정을 설명하는 Shaffer 등(2004)의 중독증후군모델에 기반하여 페이스북 중독을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중독증후군 모델의 첫 단계는 신경생리학적 요소와 심리사회학적 요소가 개인의 기저 취약성(underlying vulnerability)에 영향을 주고,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중독 대상을 접하는 단계다. 둘째 단계는 발병 전 중독증후군의 단계(premorbid addiction syndrome)로 첫 단계에서 예측치 않게 얻었던 보상적 결과가 하나의 목표가 되어 이를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단계이다. 고은영 외(2014)는 둘째 단계에서 타인이 올린 글을 보고 자신과 비교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열등감이나 우울 등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하였고, 이는 타인의 반응에 더 집착하고, 페이스북을 반복하여 사용하며, 추구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이수진과 문혁준(2013)도 이러한 개인의 내적 정서변인이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본격적으로 중독 증후군의 후유증이 나타나는 단계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페이스북 중독에 이르는 과정의 구체적 기제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중독증후군 모델의 첫 단계에 포함된 개인의 기저취약성 변인으로 자기애적 성향에 주목하였다. Kohut(1979)은 중독 행위가 긴장을 줄이고 자존감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자기애적 장애가 '중독'의 핵심이 된다고 설명하였고, Kuss와 Griffiths(2011)는 실질적으로 자기중심적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여, SNS에 더 끌릴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특히 여러 연구들은 외현적 자기애보다 내현적 자기애를 더 부적응적이고 역기능적인 자기애로 분류하였다(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 2005; Brookes, 2015; Miller & Campbell, 2008; Rose, 2002). 내현적 자기애란, 겉으로 자기애적인 잘난 척과 거만함 등을 드러내지 않지만 내면

에 깊은 자기애적 역동과 기제를 지니고,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매우 민감하고, 수줍어하면서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피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성격 경향을 말한다(권석만, 한수정, 2000; 정남운, 2001; Cooper, 1998).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은 실질적인 대인관계 상황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상황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이로 인해 인터넷에 더 빠져들기 쉽다고 하였다(손정선, 2010; 이계정, 정남운, 2007; 제현채, 김정규, 2014). 또 다른 연구들에서도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할수록 SNS에 더 몰입하게 되고, 결국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빠져들 수 있다고 하였다(강동주, 조성현, 강신진, 2013; 노고은, 이승연, 2016; 류경희, 홍혜영, 2014; 이경미, 김완일, 2014; 정병완, 홍혜영, 2015). 이외에도 내현적 자기에 요인 가운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을 이용하거나 타인의 권리는 침해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SNS를 더 많이 이용하고 중독 가능성도 높다는 연구보고들이 있다(Kuss & Griffiths, 2011; Manago, Graham, Greenfield, & Salimkhan, 2008).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크나 이를 실제적인 인간관계에서 드러내지 않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보상받기 위해 페이스북을 더 강박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겠다.

그런데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일시적 증상이기 보다는 일종의 취약한 성격구조이고(권은미 외, 2009), 부적응적 사회화 경험에 의해 활성화될 가능성을 지닌 기질적 특성에 의한 것이기에(Thomaes, Bushman, De Castro, & Stegge, 2009) 상담 및 심리치료에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며, 단기적 개입으로 변화가 힘들 수 있다. 따라서 적합한 치료적 개입을 위하여 병리적이고 부정적인 현상을 유발하는 매개기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다(김선미, 서경현, 2015; 정승아, 오경자,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독증후군 모델에 기반하여,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페이스북 중독에 빠지는데 있어서 이들이 더 많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가 과정변인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그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매개변인으로 공격성에 주목하였다. 청소년기는 전 생애적 관점에서 공격성이 증가하고, 공격적인 행동장애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기라고 할 수 있다(조복희, 정옥분, 유가효, 1999). 이에 더하여, 최근 연구동향은 자기애적 성향으로 인한 공격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향자, 김영란, 김희정, 2007; 이세연, 유미숙, 2010; Martinez, Zeichner, Reidy, & Miller, 2008). 즉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스스로 거대한 자기상을 형성하고 타인의 인정과 찬사를 통해 이를 확인받고자 하나, 이러한 욕구가 좌절되면 자기애적 상처가 자극되어 분노하고 공격성을 보인다는 것이다(Kohut, 1979). 특히, 외현적 자기에 집단보다 내현적 자기에 집단의 공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강진욱, 2009; 김효주, 2010),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보이는 경우에 타인으로부터의 비난을 두려워하여 분노 등을 억제하다가 도발적 상황에서 분노가 폭발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거나(임지영, 2012) 해소되지 않은 분노나 공격성을 다른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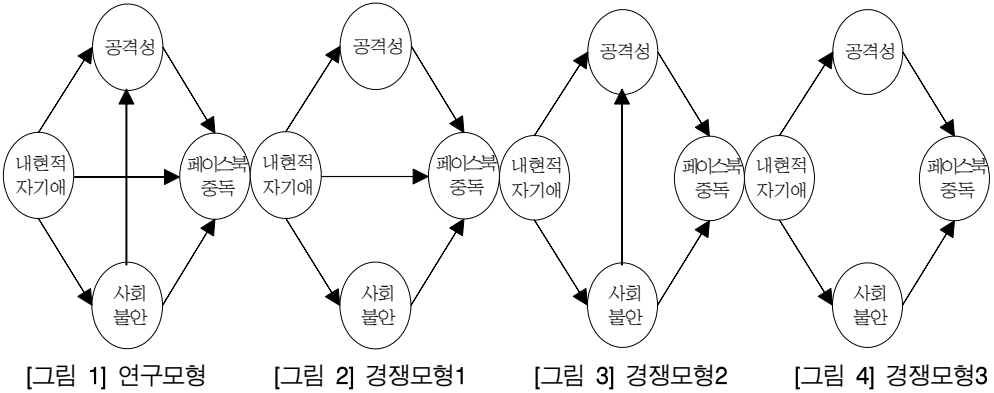
에게 전위하여 나타낸다고 하였다(임혜은, 한세영, 2016; Loudin, Loukas, & Robinson, 2003). 나아가 공격성이 높을수록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류경희, 홍혜영, 2014; 황승일, 2013), 특히 현실에서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한 분노나 적대감의 부정적인 감정이 클수록 스마트폰 중독 비율이 증가하였다(류경희, 홍혜영, 2014).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공격성을 많이 경험하고, 공격성이 높을수록 실제적인 관계에서 공격성을 드러내기 어려워하는 이들의 특성상 공격성을 해소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페이스북을 과도하게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부정적 평가에 과민하고, 두려워하며, 부정적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피하려한다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권석만, 한수정, 2000; 박세란 외, 2005), 본 연구는 매개변인으로 사회불안에 주목하였다. 사회불안은 타인과 함께 교류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불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수줍고 내성적인 아동기를 보낸 10대 중반의 청소년기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권석만, 2013). 그런데 사회불안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과민함이 사실은 남들에 비해 뛰어나고 싶고, 특별한 인상을 주고 싶다는 거대한 자기애적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고(권은미 외, 2009), 여러 경험적 연구들이 내현적 자기에와 사회불안의 높은 관련성을 지지하였고(권은미 외, 2009; 나하영, 신태섭, 2016; 노고은, 이승연, 2016; 오하연, 박경, 2017; 최인선, 최한나, 2013), 임상적으로도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과 사회불안을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주, 이영순, 2015; Cooper, 1998). 이처럼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의 자기애적 욕구가 클수록 타인의 반응을 과도하게 살피고, 실수로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실질적인 상호작용을 피하는 사회불안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손은경, 권혜수, 2014; Gabbard, 1989). 나아가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인관계활동을 할 수 있는 인터넷(노고은, 이승연, 2014; Campbell, Cumming, & Hugh, 2006; Caplan, 2006)이나 SNS(이선자, 2013; 황희은, 김향숙, 2015)에 과도하게 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페이스북 이용 동기가 주로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불안으로 인해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는 대인관계욕구로 인한 좌절이 클수록 페이스북 접속을 통해 이를 보상받으려는 경향이 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인간관계를 더 단절시키고, 이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시 페이스북 사용에 몰두하는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겠다(고은영 외, 2014). 결국 실제적인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두려워하는 사회불안이 페이스북 중독에 선행하는 변인일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외부 평가에 대한 과민함과 충족되지 않은 기대로 인하여 평가와 관련된 상황을 회피하고 사회적으로 철수하려는 사회불안이 증가할 수 있고, 현실세계에서 타인과 어울리기 어렵고 고립감을 느끼는 사회불안 정도가 클수록 비교적 불안을

덜 느끼며 소통할 수 있는 페이스북 공간에 더욱 더 빠져들고, 결국 페이스북 중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하면, 지금까지 내현적 자기애와 인터넷·스마트폰·SNS 중독의 관계를 살펴보는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내현적 자기애와 페이스북 중독의 관계, 특히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페이스북 중독에 어떠한 과정변인을 거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Shaffer 등(2004)의 중독증후군모델과 관련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들의 내현적 자기애, 공격성 및 사회불안이 페이스북 중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변인들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탐색적일 수 있지만 페이스북 중독에 대한 통합적 관계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모형을 비교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먼저 내현적 자기애가 페이스북 중독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공격성과 사회불안을 통해 그리고 이 두 변인들의 이중매개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부분매개모형을 연구모형(그림 1)으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높은 수준의 사회불안이 공격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김세원, 김예성, 2009; 이미옥, 하정희, 최윤영, 2015). 이를 통해, 사회불안 경향이 높을수록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런데, 사회평가불안을 보이는 사람들은 승인받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격성보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내재된 형태의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보고들이 있다(한영경, 2008; Loudin et al., 2003; Loukas, Paulos, & Robinson, 2005). 이에 근거하여 경쟁모형 1(그림 2)은 연구모형과 다른 경로는 일치하고, 이중매개의 경로만 삭제한 모형이다. 한편,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인터넷 중독 및 과다사용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류경희, 홍혜영, 2014; 제현채, 김정규, 2014)도 있지만 매개변인을 통한 간접효과만 유의미하다는 연구보고도 있다(노고은, 이승연, 2016). 이에 그림3의 경쟁모형 2(그림 3)와 경쟁모형 3(그림 4)은 각각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1과 다른 경로는 일치하고, 내현적 자기애가 페이스북 중독에 이르는 직접 경로만을 삭제한 완전매개모형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 공격성, 사회불안, 페이스북 중독의 구조적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페이스북 중독의 관계를 공격성이 매개하는가? 셋째, 내현적 자기애와 페이스북 중독의 관계를 사회불안이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기·충청 지역에 위치한 4개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교생 4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345명의 응답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전체 345명 가운데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192명(55.7%),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 153명(44.3%)이고, 남학생이 151명(43.8%), 여학생이 194명(56.2%)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내현적 자기애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애를 측정하기 위하여 Akhtar와 Thomson(1982)의 자기애적 성격 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참고하여 강선희와 정남운(2002)이 개발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내현적 자기애 척도는 목표불안정(9문항, 예: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직도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9문항, 예: 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잘 대해주기를 바란다), 착취/자기중심성(9문항, 예: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마음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나를 위해 많은 돈을 쓰기를 바란다), 과민/취약성(10문항, 예: 비판받았을 때, 나는 쉽게 굴욕감을 느낀다), 소심/자신감 부족(8문항, 예: 나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살피는 편이다)의 5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45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본 척도는 일부 역채점 문항들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Cronbach's α 는 강선희와 정남운(2002)의 연구에서 목표불안정이 .89,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이 .81, 착취/자기중심성이 .74, 과민/취약성이 .80, 소심/자신감 부족이 .77, 전체가 .9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목표불안정이 .86, 인정욕구/거대자기환상이 .77, 착취/자기중심성이 .78, 과민/취약성이 .79, 소심/자신감 부족이 .70, 전체가 .91로 나타났다.

2) 공격성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Buss와 Perry(1992)의 공격성 척도를 정동화(1995)가 번역·수정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공격성 척도는 신체적 공격성(6문항, 예: 나는 때때로 남을 때리고 싶은 마음을 누를 수 없다), 언어적 공격성(6문항, 예: 나는 내 친구와 의견이 맞지 않으면, 서슴없이 이야기한다), 적대감(5문항, 예: 나는 때때로 미워하거나 질투심으로 가득 찰 때가 있다), 분노(4문항, 예: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자주 싸운다)의 4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21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격성 척도의 Cronbach's α 는 류경희와 홍혜영(2014)의 연구에서 신체적 공격성이 .82, 언어적 공격성이 .76, 적대감이 .75, 분노가 .70, 전체가 .9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 공격성이 .73, 언어적 공격성이 .64, 적대감이 .68, 분노가 .64, 전체는 .86으로 나타났다.

3) 사회불안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을 대인상황에서 경험하는 대인불안과 특정한 수행상황에서 경험하는 수행불안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먼저 대인불안은 LaGreca(1998)가 개발한 청소년용 사회불안척도(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 SAS-A)를 양재원, 양윤란, 오경자(2008)가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 사회불안 척도(Korean version of 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 K-SAS-A)를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수행불안은 Beidel, Turner와 Morris(1995)의 아동용 사회 공포증 및 불안 척도와 LaGreca와 Stone(1993)의 개정판 아동용 사회 불안 척도를 문혜신과 오경자(2002)가 번안·타당화한 한국판 아동 청소년 사회불안 척도(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PAI-C)를 사용하였다. 대인불안척도는 대인관계 상황에서의 불안감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고(18문항, 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있다고 걱정한다), 수행불안척도는 수행상황에서의 불안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8문

항: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질문하면 너무 긴장해서 대답을 잘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는 총 26 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불안척도의 Cronbach's α 는 도현정과 김정민(2014)의 연구에서 대인불안이 .94, 수행불안이 .91, 전체가 .9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대인불안이 .90, 수행불안이 .87, 전체는 .93으로 나타났다.

4) 페이스북 중독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중독을 측정하기 위해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척도(KS-A), Andreassen 등(2012)이 개발한 버겐 페이스북 중독성 척도(Beegen Facebook Addiction Scale: BFAS), 오윤경(2012)과 조성현·서경현(2013)이 각각 개발·보완한 SNS 중독 경향성 척도를 정예현(2015)이 페이스북 중독 척도로 재구성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페이스북 중독 척도는 과다시간 소비(3문항, 예: 페이스북을 더욱 많이 사용해야 할 것 같은 욕구를 느낀다), 내성몰입(3문항, 예: 페이스북 이용을 줄여보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다), 금단(3문항, 예: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견디기 힘들 것이다), 생활 장애(3문항, 예: 페이스북을 너무 자주하거나 오래 한다고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불평을 들은 적이 있다)로 구성되어 있다. 총 12문항을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페이스북 중독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페이스북 중독 척도의 Cronbach's α 는 정예현(2015)의 연구에서 과다시간 소비가 .88, 내성몰입이 .92, 금단이 .85, 생활장애가 .82, 전체는 .9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과다시간 소비가 .76, 내성몰입이 .83, 금단이 .77, 생활장애가 .78, 전체는.90으로 나타났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2.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분석했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 공격성, 사회불안, 페이스북 중독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했다. 둘째, 연구변인의 경향성과 정상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했다. 셋째, 연구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했다. 넷째, 내현적 자기애가 페이스북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격성과 사회불안의 매개모형을 설정하고, 구조모형 검증을 실시하여 매개모형의 적합도 및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본격적인 모형 검증에 앞서,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제안에 따라 문항 꾸러

미(item parcels)를 제작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잠재변수 별로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여 단일요인을 가정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고, 요인부하량이 .30미만인 문항은 분석에서 제외시켰다(내현적 자기에 3문항, 공격성 1문항). 이는 표준 요인부하량의 기준이 .30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에 근거하였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1992). 그런 후, 내현적 자기에, 공격성, 페이스북 중독은 각각의 하위척도를 측정변인으로 이용하여 잠재변인을 구성하였고, 사회불안은 각 꾸러미가 잠재변수에 동일한 부하량을 갖도록 하여 4개의 꾸러미를 만들어 잠재변수를 구성하였다.

구조모형 검증은 구조방정식의 2단계 접근법(Anderson & Gerbing, 1988)에 따라 진행했다. 우선,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히 구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했다. 다음으로, 구조모형의 전체 적합도 및 각 경로의 유의도를 확인했다. 모형의 적합도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여 영가설을 쉽게 기각할 수 있는 χ^2 값 이외에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와 TLI(Tucker-Lewis Index),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함께 확인했다. 이때, CFI와 TLI가 .90 이상이고(Bentler, 1990), RMSEA가 .10 이하이면 적합한 모형인 것으로 판단했다(MacCallum, Browne, & Sugawara, 1996).

마지막으로 내현적 자기에와 페이스북 중독 사이에서 공격성과 사회불안의 간접 효과에 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Shrout & Bolger, 2002)을 실시했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서는 다중 매개효과 검증 시 개별 간접 효과에 관한 추정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팬텀변인(phantom variable)을 설정한 후 부트스트랩 절차를 통해 변인들의 개별 간접 효과를 확인했다(배병렬, 2011). 부트스트랩 절차는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본 연구의 원자료(N=345)로부터 무선할당으로 만들어진 10000개의 표본에서 간접 효과를 추정했고, 간접 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alpha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III. 연구결과

1. 각 변인별 기술통계 및 상관

모형검증에 앞서, 측정 변수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 그리고 변수 간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각 변인들이 정상분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연구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그런데 구조방정식 모형에서의 정상분포곡선(왜도 < 2, 첨도

< 4>을 고려했을 때(Hong, Malik, & Lee, 2003),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구조 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상분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대체적으로 변수 간에는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특히,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r=.67$), 내현적 자기애와 공격성($r=.57$)이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다. 그 외에 내현적 자기애와 페이스북 중독($r=.41$), 공격성과 사회불안($r=.41$), 사회불안과 페이스북 중독($r=.40$), 공격성과 페이스북 중독($r=.35$)도 비교적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2.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에 앞서, 17개의 측정변수들이 청소년들의 내현적 자기애, 공격성, 사회불안, 페이스북 중독 총 4개의 잠재변수를 적절히 구인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MOS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113, N=345)=315.74, p<.001, CFI=.95, TLI=.95, RMSEA=.072(90\% \text{ 신뢰구간 } .063\sim.082)$. 또한, 측정변수들은 잠재변수에 .73~.91까지 적재된 것으로 나타났고,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변수에 대한 잠재변수의 요인 부하량은 내현적 자기애가 .81~.88, 공격성은 .73~.81, 사회불안은 .81~.91, 페이스북 중독은 .82~.88이었다.

3. 구조모형 검증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를 예언변수로, 공격성과 사회불안을 매개변수로, 페이스북 중독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이 경험적 자료와 잘 맞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모형, 경쟁모형 1, 경쟁모형 2, 경쟁모형 3을 설정하여 적합도를 검증하였고,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연구모형을 검증한 결과,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113, N=345)=315.74, p<.001, CFI=.95, TLI=.95, RMSEA=.072(90\% \text{ 신뢰구간 } .063\sim.082)$. 경쟁모형 1도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114, N=345)=315.74, p<.001, CFI=.95, TLI=.95, RMSEA=.072(90\% \text{ 신뢰구간 } .062\sim.081)$. 경쟁모형 2도 자료에 적합하였다. $\chi^2(df=114, N=345)=317.99, p<.001, CFI=.95, TLI=.95, RMSEA=.072(90\% \text{ 신뢰구간 } .063\sim.082)$. 경쟁모형 3도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chi^2(df=115, N=345)=318.00, p<.001, CFI=.95, TLI=.95, RMSEA=.072(90\% \text{ 신뢰구간 } .062\sim.081)$. 경쟁모형들이 연구모형에 내재되어 있으므로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하여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

<표 1> 주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 변수 간 상관계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 목표불안정	1																
2. 인성육구	.75**	1															
3. 착취	.70**	.73**	1														
4. 과민	.67**	.63**	.78**	1													
5. 소심	.74**	.66**	.71**	.68**	1												
6. 신체공격	.33**	.37**	.47**	.45**	.35**	1											
7. 언어공격	.35**	.36**	.43**	.45**	.33**	.63**	1										
8. 적대감	.36**	.37**	.46**	.44**	.37**	.55**	.55**	1									
9. 분노	.43**	.44**	.55**	.55**	.42**	.56**	.64**	.61**	1								
10. 사회불안1	.57**	.62**	.58**	.55**	.48**	.32**	.33**	.42**	.48**	1							
11. 사회불안2	.56**	.61**	.55**	.51**	.48**	.28**	.29**	.40**	.42**	.82**	1						
12. 사회불안3	.47**	.53**	.50**	.46**	.42**	.17**	.22**	.26**	.23**	.65**	.74**	1					
13. 사회불안4	.52**	.56**	.54**	.47**	.45**	.20**	.22**	.28**	.31**	.77**	.77**	.76**	1				
14. 과다시간	.31**	.29**	.36**	.33**	.29**	.23**	.26**	.28**	.27**	.37**	.28**	.31**	.36**	1			
15. 내성말임	.31**	.30**	.32**	.34**	.27**	.21**	.27**	.27**	.28**	.37**	.28**	.28**	.30**	.81**	1		
16. 급단	.34**	.30**	.37**	.37**	.35**	.23**	.30**	.29**	.35**	.40**	.30**	.28**	.34**	.72**	.72**	1	
17. 생활장애	.30**	.30**	.31**	.30**	.28**	.21**	.25**	.26**	.28**	.38**	.29**	.32**	.34**	.71**	.67**	.76**	1
평균	2.76	2.76	2.60	2.48	2.79	2.40	2.52	2.34	2.57	2.47	2.67	2.49	2.48	2.27	2.38	2.46	2.54
표준편차	0.51	0.52	0.53	0.52	0.50	0.61	0.60	0.64	0.63	0.63	0.65	0.67	0.64	0.69	0.71	0.71	0.72
왜도	-.40	-.20	-.11	-.07	-.14	.11	.17	-.02	.22	.04	-.08	.08	.04	.26	.30	.12	.15
첨도	.07	-.18	-.31	-.29	.01	-.36	-.30	-.52	-.08	-.18	-.32	-.58	-.36	-.31	-.38	-.43	-.32

주. * $p < .05$, ** $p < .01$
 가능한 점수 범위: 내면적지기에(1~5), 공격성(1~5), 사회불안(1~5), 페이스북중독(1~5)

연구모형과 경쟁모형 1의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χ^2 의 차이값은 0으로 나타나 더 간명한 모형인 경쟁모형 1이 연구모형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쟁모형 2와 경쟁모형 3의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χ^2 의 차이값은 0.01로 나타나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더 간명한 모형인 경쟁모형 3이 경쟁모형 2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경쟁모형 1과 경쟁모형 3의 χ^2 차이 검증을 실시한 결과, χ^2 의 차이값은 2.26으로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아 더 간명한 모형인 경쟁모형 3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표 2>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90% 신뢰구간)
연구모형	315.74	113	.95	.95	.072(.063~0.082)
경쟁모형1	315.74	114	.95	.95	.072(.062~0.081)
경쟁모형2	317.99	114	.95	.95	.072(.063~0.082)
경쟁모형3	318.00	115	.95	.95	.072(.062~0.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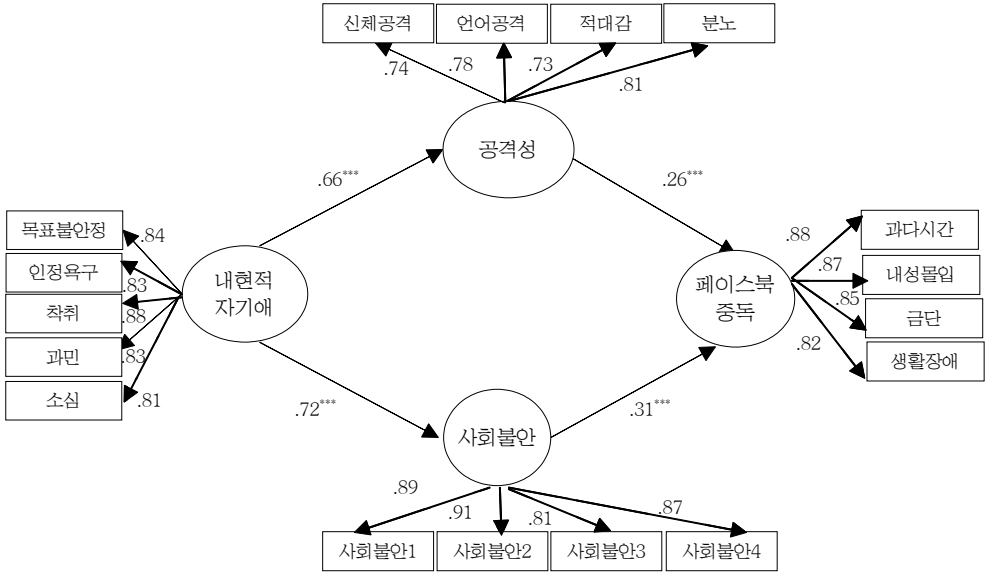
4. 최종모형 검증

최종모형을 검증한 결과, 4개의 직접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다. 최종모형의 표준화된 경로계수와 모수 추정 결과는 <표 3>과 [그림 5]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beta=.72$).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애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beta=.66$), 사회불안이 페이스북 중독에 미치는 영향($\beta=.31$), 공격성이 페이스북 중독에 미치는 영향($\beta=.26$)이 모두 유의하였다.

<표 3> 최종모형의 모수 추정 결과

경로	비표준화 회귀계수	표준화 회귀계수	표준 오차	t
내현적 자기애 → 공격성	0.40	0.66	0.04	10.83***
내현적 자기애 → 사회불안	0.73	0.72	0.05	13.60***
공격성 → 페이스북중독	0.20	0.26	0.05	4.03***
사회불안 → 페이스북중독	0.15	0.31	0.03	5.03***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5] 최종모형

* $p < 0.5$, ** $p < .01$, *** $p < .001$, 점선은 유의하지 않은 경로

5. 매개효과 검증

최종 다중 매개모형의 개별 매개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수를 사용한 접근법(Chan, 2007)을 사용하였고, 95%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을 때, $\alpha = .05$ 수준에서 간접효과가 유의하다고 판단하는 Bootstrap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최종모형에서 내현적 자기에와 페이스북 중독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 비표준화 계수는 .08, 95% Bias-corrected CI=[.044, .121]로 유의하지 않았고, 내현적 자기에와 페이스북 중독의 관계에서 사회불안의 매개효과 비표준화 계수는 .11, 95% Bias-corrected CI=[.068, .144]로 유의하였다.

<표 4> 부스트래핑을 통한 간접효과 분석 결과

경로			간접효과(95% 신뢰구간)
내현적자기애	→ 공격성	→ 페이스북중독	0.08*(.044~.121)
내현적자기애	→ 사회불안	→ 페이스북중독	0.11*(.068~.144)

* $p < .05$,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에가 페이스북 중독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어떤 기제를 통해 내현적 자기에가 페이스북 중독으로 발전하게 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와 페이스북 중독을 매개하는 변인으로 이론적·경험적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정서적 측면인 공격성과 사회불안을 과정변수로 가정하였는데, 연구 결과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공격성과 사회불안을 증폭시켜 페이스북 중독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공격성을 많이 보이고, 사회불안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최근 자기에적 성향으로 인한 공격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연구동향 및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내면에 숨겨둔 거대한 자기상이 위협받을 때 공격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김정균, 장석진, 2014; 류경희, 홍혜영, 2014; 백승혜, 현명호, 2008; 서수균, 2007; 임지영, 2012)와 일치한다. 또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염려로 사회적 상황을 피하려하는 사회불안 증상이 사실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지닌 이면에 남보다 뛰어나고 싶고 특별한 인상을 주고 싶은 거대한 자기에적 욕구 때문이라는 예측을 확인시켜주며, 이는 다수의 경험적인 연구들(권은미 외, 2009; 나하영, 신태섭, 2016; 노고은, 이승연, 2016; 오하연, 박경, 2017; 최인선, 최한나, 2013)과 맥을 같이한다.

다음으로 공격성이 높을수록 페이스북 중독 경향을 많이 보였고, 사회불안을 많이 경험할수록 페이스북 중독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에서 적절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해소하지 못한 내면의 공격성이 페이스북이라는 매체에 투여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하고, 공격성이 높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경험적 연구결과와 흐름을 같이한다(류경희, 홍혜영, 2014; 황승일, 2013). 또한, 사회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비교적 불안을 적게 경험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노고은, 이승연, 2016; Caplan, 2006)이나 SNS 등(황희은, 김향숙, 2015)에 중독되기 쉽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에와 페이스북 중독의 관계를 공격성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현적 자기에와 스마트폰 중독의 관계를 공격성이 부분 매개한다는 연구결과(류경희, 홍혜영, 2014) 및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대학생의 분노표출을 매개로 SNS 중독을 높인다는 연구결과(정구철, 문종호, 2015)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내현적 자기에가 인터넷 중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 경험회피(제현채, 김정규, 2014), 인터넷 보상경험(이계정, 정남운, 2007) 등의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더 크다는 선행연구결과와 흐름을 같이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해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으면 자신의 취약한 면을 수용하기 어려워하고, 수치심을 갖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치심이 자극받으면 타인

을 공격하는 행위로 갇히려는 성향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공격적 성향이 높을수록 오프라인에서의 여러 관계들이 실패로 끝나기 쉬움을 예측해볼 수 있다. 그리고 공격성이 높을수록 실제적인 대인관계는 피하는 반면 해소되지 않은 대인관계욕구를 보상받기 위해 페이스북에 과하게 몰입함으로써 관계 욕구를 해소하려 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겠다. 혹은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이 언어적·신체적 공격성 및 분노와 적대감 등의 공격성을 느끼기 쉽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현실에서 해소하기보다 페이스북 공간으로 전위하여 드러내기 쉽다고 해석해볼 수도 있겠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의 페이스북 중독 문제를 상담할 때, 이들이 건전한 방법으로 공격성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하다.

셋째,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에와 페이스북 중독의 관계를 사회불안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현적 자기에와 인터넷 과다사용의 관계를 사회불안이 완전매개한다고 밝힌 노고은과 이승연(2016)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라 하겠다. 그리고, 높은 사회불안증상을 보이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자신의 대인관계 욕구를 인터넷을 통해 해소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도 맥을 같이한다(Dickinson & Pincus, 2003; Erwin et al., 2004). 이상의 연구결과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보이는 사람들이 사회적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타인의 평가나 시선에 지나치게 민감해지기 쉽고, 부정적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을 예측하고 두려워하면서 결국 심리적 부담을 덜 느끼며 소통할 수 있는 페이스북 중독으로 철수하고, 이에 중독적으로 몰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페이스북 중독을 직접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상담에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의 페이스북 중독 문제에 접근할 때, 이들이 보이는 사회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학습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에 더욱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하다.

결국 내현적 자기에 성향의 영향으로 공격성과 사회불안을 더욱 강렬하게 경험하고,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관계에서 채워지지 않는 자기에적 욕구 및 대인관계적 욕구를 보상받기 위하여 페이스북을 이용하지만, 이는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을 초래할 수 있고, 다시 여기서 생긴 부정적인 감정을 경감시키기 위해 페이스북에 더욱 몰입하게 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고은영 외, 2014). 이러한 연구결과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을 지닌 청소년들이 페이스북을 중독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해 어떠한 개입전략이 유용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준다.

먼저, 페이스북 중독은 내현적 자기에의 간접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직접적으로 페이스북 중독을 예측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페이스북 중독을 설명하는 기제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내현적 자기에에는 성격적 특성이기 때문에 개입이 쉽지 않고, 치료적 개입으로 인한

변화를 즉각적으로 보기도 힘들다(권은미 외, 2009). 더욱이 일반적으로 성격장애를 보이는 사람들은 성격장애 자체를 문제로 상담 장면에 오기보다 성격문제에 따른 이차적인 문제로 방문하기가 쉽다(제현채, 김정규, 2014). 따라서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가 개인의 기질적으로 취약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직접 개입은 어렵지만 공격성과 사회불안을 낮추는 개입을 통해 내현적 자기애를 보이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페이스북 중독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독증후군 모델과 이와 연관된 경험적 연구들에 기반하여 페이스북 중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되는 변인들로 기저 취약성 변인(내현적 자기애)과 근접선행요인(공격성·사회불안)을 해당 변인으로 선정하였고, 페이스북 중독에 대한 실증적인 영향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독증후군 모델에 적용하여 해석해보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는 자기애적 욕구를 페이스북 공간에서 채우게 되는 경험을 우연히 하게 되는 것이 시발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런데, 페이스북 사용에 매달릴수록 현실의 대인관계를 더 두려워하며 피하게 될 수 있고, 타인이 올린 글에 의해 적대감이나 분노 등의 공격성을 경험하는 빈도나 강도도 높아질 수 있겠다. 그러면 다시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를 페이스북 공간에서 해소하기 위해 더욱 더 페이스북 사용에 매달리는 중독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더하여, 내현적 자기애 성향은 부정적 경험에 의해 더욱 활성화되기 쉬운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의 순환 고리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에 본 연구의 중요한 매개변인이었던 공격성과 사회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회피하지 않고 수용하도록 돕는 수용전념치료나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돕는 계속탈트치료가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다(유화경, 2014; 제현채, 김정규, 2014; 황다연, 2011). 이외에도 인지행동치료(Rice & Dolgin, 2008) 혹은 참만남 방식의 집단상담(신수자, 2005) 경험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집단상담 상황이라는 안전기지 안에서 타인의 피드백을 자신에 대한 평가나 비난이 아닌 발전적인 피드백으로 인식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충청 및 경기도권 소재의 고교생에 편중하여 자료수집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청소년 집단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애, 공격성, 사회불안, 페이스북 중독을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자기보고는 현실에서의 실제 모습과 거리가 있을 수 있고, 자기방어나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왜곡된 응답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관찰자 평정이나 전문가 면접 및 실험연구 방법 등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특히, 내현적 자기애가 높은 사람들의 경우, 외현적으로 표현되는 공격성과 내면에 느끼는 공격성의 차이가 클 수 있는데 이러한 공격성의 개념을 구분하여 본

연구의 모델을 재검증해볼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예측변인, 매개변인, 준거변인을 동일한 시기에 자기보고식으로 측정한 횡단 연구이다. 따라서 이들의 인과관계에 대해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본 연구가 기본적으로 상관연구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변인 간 양방향의 인과적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페이스북 사용에 더 몰입할 가능성도 있지만, 페이스북을 지나치게 사용하여 더 불안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정확한 연구를 위해 변인들 간의 시간적 순서를 고려한 단기적 종단연구가 필요하겠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관계가 적합한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해보는 작업이 필요하겠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대상 및 연구모형과 완전히 일치하는 선행연구가 없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구조방정식의 2단계 접근법은 탐색적 방법이므로 추후에 새로운 자료로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넷째, 내현적 자기에 성향은 부적응적 사회화 경험에 의해 더욱 활성화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공격성이나 사회불안 등의 부정적인 정서가 페이스북 중독에 이르는 과정에서 조절변인의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가 페이스북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불안과 공격성을 조절변인으로 하여 이의 효과를 검증해볼 필요가 있겠다.

다섯째, 사실상 페이스북 중독은 급격한 기술적 진보와 함께 생겨난 최근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관련 변인들에 대한 탐색은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다(고은영 외, 2014). 따라서 앞으로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에와 페이스북 중독의 관계를 파악할 때, 본 연구에서 매개변인으로 밝혀진 정서적 변인들을 반복검증해보고, 나아가 두 변인 사이의 연결통로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매개변인을 지속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중독현상이 발달 및 유지되는 핵심기제가 동일하다는 중독증후군모델의 원리를 고려해볼 때, 본 연구에서 검증해본 페이스북 중독에 대한 통합적 모델이 다른 중독 현상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다.

여섯째, 본 연구는 사실상 임상집단이 아닌 일반 고교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페이스북 중독보다는 페이스북 과다사용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 있겠다. 추후 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중독의 고위험군 만을 대상으로 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겠다. 나아가 스마트폰 중독의 경우, 보통 여학생(김은영, 2013; 황경혜, 유양숙, 조옥희, 2012) 및 여성 이용자들(황하성, 손승혜, 최윤정, 2011)의 중독률이 반대의 성보다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있고, 이를 여성이 남성보다 관계 지향성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한 채팅이나 SNS를 남성보다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성차를 고려하여 페이스북 중독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겠다.

일곱째, 본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자들이 빈번하게 느끼는 부정적 정서 가운데 청소년기에 더욱 심화되기 쉬운 공격성과 사회불안을 매개변인으로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내현적 자기에 성향 및 페이스북 중독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리라 예상되는 다른 부정적 정서 변인

을 과정변인으로 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해볼 필요가 있겠다.

여덟째, 사실상 페이스북으로 대표되는 SNS는 개인의 자기 PR 도구로서 의사표현의 장이 될 수 있고, 개인이 맺고 있는 여러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뽑힌다(황선욱, 박재진, 2011). 나아가 개인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기능도 있다고 언급된다(이재신, 연보영, 2008). 그러나 이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과몰입되고 중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이상호, 고아라, 2013). 사실상 몰입을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중독에 이르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지닌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는지(Schüler, 2012)는 계속적인 논의의 주제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페이스북 이용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몰입으로 볼 수 있는 정도와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서 과도하고 반복적인 몰입으로 인하여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도는 다를 수 있음을 구분하고, 긍정적인 몰입의 상태와 과몰입, 중독의 상태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될 필요가 있겠다. 이와 더불어, 페이스북 중독의 치료라는 관점에서 페이스북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치료 목표가 아니라 개인 스스로 통제력을 갖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치료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도 앞서 언급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겠다.

이상 언급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내현적 자기에와 페이스북 중독 간의 관계성을 정교화시킴으로써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명료화하고 통합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이외에도 내현적 자기에의 영향으로 인해 페이스북 중독을 경험하는 청소년을 상담할 때, 실질적인 치료적 효과를 이룰 가능성이 큰 심리내적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실용적 의의가 있고, 본 연구의 결과가 페이스북 중독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을 상담하는데 있어 치료적 접근법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동주, 조성현, 강신진(2013).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사용 경향 분석을 위한 프레임워크. **정보과학회논문지: 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19(10), 502-508.
- 강선희, 정남운(2002). 내현적 자기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 강진욱(2009). **청소년의 내, 외현적 자기애와 자기개념 명료성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고은영, 최윤영, 최민영, 박성화, 서영석(2014). 외로움, 대인 민감 및 페이스북 중독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3), 713-738.
- 고향자, 김영란, 김희정(2007). 상담일반: 소년수형자와 일반 청소년의 자기애, 자아존중감 및 공격성 비교연구. **상담학연구**, 8(3), 917-933.
- 권석만(2013). **현대 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 권석만, 한수정(2000). **자기애성 성격장애: 지나친 자기사랑의 함정**. 서울: 학지사.
- 권은미, 신민섭, 김은정(2009).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627-642.
- 김보현, 서경현(2012). 고등학생의 폰 중독 및 인터넷 게임중독과 스트레스 반응: 수면부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7(2), 385-398.
- 김선미, 서경현(2015). 내현적 자기애와 SNS 중독 경향성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0(3), 587-603.
- 김성주, 이영순(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 평가염려 완벽주의, 부정평가에 대한 두려움,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1), 199-216.
- 김세원, 김예성(2009). 청소년의 신체적 공격성 발달궤적 및 예측요인. **인간발달연구**, 16(2), 87-107.
- 김은영(2013).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실태 및 중독현황 조사-강북·성북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미나 자료집.
- 김정균, 장석진(2014).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2), 791-810.
- 김효주(2010). **자기애 성향자들의 명시적, 암묵적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카톨릭대학교.
- 나하영, 신태섭(2016).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

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3), 695-717.

노영(2016). SNS 이용 동기가 몰입과 중독에 미치는 영향 연구. **e-비즈니스 연구**, 17(3), 301-320.

도현정, 김정민(2014). 여자 청소년의 행동억제와 섭식태도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체형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3), 57-82.

류경희, 홍혜영(2014). 중학생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와 스마트폰 중독간의 관계: 공격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 연구**, 21(8), 157-183.

매일경제(2016. 02. 19). 페이스북 중독, 마약 중독만큼이나 위험하다.

<http://news.mk.co.kr/newsRead.php?no=134187&year=2016>

문혜신, 오경자(2002). 한국판 아동,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2), 429-443.

박세란, 신민섭, 이훈진(2005). 외현적·내현적 자기애의 자기평가와 정서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2), 255-266.

박응기(2013). **청소년 SNS 중독에 관한 탐색적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발표문.

배병렬(2011). **AMOS 19.0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백승혜, 현명호(2008). 내현적, 외현적 자기애 성향자의 적대감, 분노경험수준 및 분노표현양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4), 1001-1017.

서수균(2007). 자존감과 자기애 수준에 따른 분노사고, 신념, 분노표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19-734.

성요안나, 현명호(2016). 대학생의 SNS 이용 동기와 SNS 중독경향성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스트레스연구**, 24(4), 257-263.

세계일보(2017. 04. 16). 타인의 '쇼윈도 행복'에... '내 인생은 왜' 좌절감에.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7/04/14/20170414002508.html?OutUrl=daum>

손은경, 권해수(2014).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개념 명료성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2(4), 153-161.

손정선(2010). **내현적 자기애와 인지적 왜곡, 인터넷 사용 동기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신수자(2005). Encounter 집단 상담이 대학생의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효과. **재활심리연구**, 12(1), 23-46.

양재원, 양윤란, 오경자(2008). 한국판 청소년 사회 불안척도(K-SAS-A)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61-878.

오윤경(2012). SNS 중독경향성과 외로움, 우울, 대인관계, 사회적 지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상담대학원.

- 오하연, 박경(2017). 내현적 자기애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 **청소년학 연구**, 24(1), 335-354.
- 유화경(2014). 수용 전념 치료(ACT)가 스마트폰 중독을 보이는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수준, 자기 조절 및 불안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이경미, 김완일(201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스마트폰 중독과의 관계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6), 2627-2644.
- 이경탁, 노미진, 권미옥, 이희옥(2013). SNS사용자의 외로움, 자기노출, 사회적지지 그리고 삶의 만족에 관한 실증연구.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3(2), 19-39.
- 이미옥, 하정희, 최윤영(2015). 또래 괴롭힘에서 주변인 역할 집단에 따른 비합리적 신념, 공격성, 사회불안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22(9), 137-161.
- 이상호(2014). 소셜미디어 중독과 지속사용 의도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2(1), 273-280.
- 이상호, 고아라(2013). 소셜미디어 중독의 영향 요인 연구: 페이스북 이용자의 인식과 몰입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57(6), 176-210.
- 이선자(2013). 또래와의 의사소통과 사회적 불안이 스마트폰의 SNS중독 정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성준(2013). 개인 심리적 특징, 이용 충족과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중독과의 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페이스북 사용자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1(4), 17-39.
- 이세연, 유미숙(2010). 청소년의 자기애 및 자존감과 공격성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7), 108-128.
- 이수진, 문혁준(2013). 중학생의 자기통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만족도가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2(6), 587-598.
- 이재신, 연보영(2008). 미니홈피에서 나타나는 대학생들의 자기노출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2(3), 98-121.
- 임지영(2012). 공격성 위험집단 청소년의 외현적, 내현적 자기애와 주도적, 반응적 공격성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9(12), 1-29.
- 임혜은, 한세영(2016). 학령후기 아동의 내현적 자기애가 전위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7(4), 129-143.
- 전범수, 이정기, 상운모(2014). 한국인의 페이스북 중독 결정요인 연구: 커뮤니케이션 관련 변인을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23, 243-272.
- 정구철, 문중호(2015).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SNS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분노표현의 매개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9), 146-156.
- 정남운(2001). 과민성 자기애 척도(the Hypersensitive Narcissism Scale)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

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93-216.

- 정동화(1995). **아동의 학교 스트레스와 그에 따른 부적응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3). **소셜 미디어 서비스 현황 및 활용: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방송통신정책, 25(9), 45-65.**
- 정승아, 오경자(2005). 자기 불일치가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4), 887-901.**
- 정예현(2015). **페이스북 이용행위, 이용 동기 및 대인관계가 중독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 재현채, 김정규(2014). **내현적 자기애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4(3), 477-489.**
- 조남근, 양돈규(2001). **사회정서발달: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 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1), 91-111.**
- 조복희, 정옥분, 유가효(1999). **인간발달-발달심리적 접근**. 서울: 교문사.
- 조성현, 서경현(2013). **SNS 중독 경향성 관련 요인 탐색: 내현적 자기애, 자기제시동기 및 소외감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239-238.**
- 지니넷코리아(2017. 04. 27). **인스타그램 가입자 7억명 돌파..트위터 2배 이상**.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le_id=20170427071336&type=det&re=
- 최인선, 최한나(2013).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4(5), 2799-2815.**
- 한국정보화진흥원(2011). **소셜미디어 부작용 유형 분석 및 대응방향**. **IT정책연구시리즈, 16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
- 한영경(2008). **중학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내적변인**.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황경혜, 유양숙, 조옥희(2012). **대학생의 스마트폰 중독사용 정도에 따른 상지통증, 불안, 우울 및 대인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10), 365-375.**
- 황다연(2011). **계슈탈트 관계성 향상 프로그램(GRIP)이 인터넷 중독 경향 청소년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 황선욱, 박재진(2011). **페이스북 무엇이 문제인가? : 심리적 문제점 요인 분석**. **한국광고홍보학회지, 겨울 91호, 68-95.**
- 황승일(2013).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황하성, 손승혜, 최윤정(2011). **이용자 속성 및 기능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25(2), 277-313.**

- 황희은, 김향숙(2015). 자존감, 사회불안 및 대인관계 지향성이 중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2(9), 233-253.
- Akhtar, S., & Thomson, J. A. (1982). Overview: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9(1), 12-20.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Andreassen, C. S., Torsheim, T., Brunborg, G. S., & Pallesen, S. (2012). Development of a Facebook addiction scale 1, 2. *Psychological Reports*, 110(2), 501-517.
- Beidel, D. C., Turner, S. M., & Morris, T. L. (1995). A new inventory to assess childhood social anxiety and phobia: The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Psychological Assessment*, 7, 73-79.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rauser, D. (2013). Smartphone addiction may affect adolescent development. *The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s 2013 Annual meeting*.
- Brookes, J. (2015). The effect of overt and covert narcissism on self-esteem and self-efficacy beyond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5, 172-175.
- Buss, A.,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459.
- Campbell, A. J., Cumming, S. R., & Hughes, I. (2006). Internet use by the socially fearful: Addiction or therapy?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9(1), 69-81.
- Caplan, S. E. (2006). Relations among loneliness, social anxiety, and problematic Internet use. *Cyberpsychology and Behavior*, 10(2), 234-242.
- Chan, W. (2007).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SEM: A sequential model fitting method using covariance-equivalent specification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2), 326-346.
- Cooper, A. M. (1998). Further developments in the clinical diagnosi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In E. F. Ronningstam (Ed.), *Disorders of narcissism: Diagnostic, clin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pp. 53-74).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ress.
- Dickinson, K. A., & Pincus, A. L. (2003). Interpersonal analysis of grandiose and vulnerable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17(3), 188-207.
- Erwin, B. A., Turk, C. L., Heimberg, R. G., Fresco, D. M., & Hantula, D. A. (2004). The internet: Home to a severe population of individuals with social anxiety disorder?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8(5), 629-646.

- Flores, S. E. (2015). *Facehooked*. 안진희 역(2016). 페이스북 심리학. 서울: 책세상.
- Gabbard, G. O. (1989). Two subtypes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Bulletin of the Menninger Clinic*, 53(6), 527-532.
- Griffiths, M., D. (2012). Facebook addiction: Concerns, criticism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Reports*, 110(2), 518-520.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2).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s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4), 636-654.
- Kohut, H. (1979). *Restoration of the self*. 이재훈 역(2006). 자기의 회복.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Kranzler, H. R., & Li, T. (2008). What is addiction? *Alcohol Research and Health*, 31(2), 93-95.
- Kuss, D. J., & Griffiths, M. D. (2011).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addiction: A review of the psychologic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8(9), 3528-3552.
- La Greca, A. M. (1998).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 : Scale development and development and validation*.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Miami.
- La Greca, A. M., & Stone, W. L. (1993). Social anxiety scale for children-revised: Factor structure and concurrent validit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2, 17-27.
- Loudin, J. L., Loukas, A., & Robinson, S. (2003). Relational aggression in college students: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empathy. *Aggressive Behavior*, 29(5), 430-439.
- Loukas, A., Paulos, S. A., & Robinson, S. (2005). Early adolescent social and overt aggression: Examining the roles of social anxiety and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4), 335-345.
- MacCallum, R. C., Browne, M. W., & Sugawara, H. M. (1996). Power analysis and determination of sample size for covariance structure modeling. *Psychological Methods*, 1(2), 130-149.
- Manago, A. M., Graham, M. B., Greenfield, P. M., & Salimkhan, G. (2008). Self-presentation and gender on MySpace.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9, 446-458.
- Martinez, M. A., Zeichner, A., Reidy, D. E., & Miller, J. D. (2008). Narcissism and displaced aggression: Effects of positive, negative, and delayed feedback. *Personality and*

- Individual Differences*, 44(1), 140-149.
- Miller, J. D., Campbell, W. K. (2008). Comparing clinical and social-personality conceptualization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76, 449-476.
- Rice, P., & Dolgin, K. G. (2008). *The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s, and culture* (12th ed). Boston: Allyn & Bacon.
- Rose, P. (2002). The happy and unhappy faces of narciss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3), 379-391.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 Schüler, J. (2012). The dark side of the moon. In S. Engeser(ed.). *Advances in Flow Research*(pp. 123-137). New York: Springer.
- Shaffer, H. J., LaPlante, D. A., LaBrie, R. A., Kidman, R. C., Donato, A. N., & Stanton, M. V. (2004). Toward a syndrome model of addiction: Multiple manifestations, common etiology.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12(6), 367-374.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7(1), 1-10.
- Thomaes, S., Bushman, B. J., De Castro, B. O., & Stegge, H. (2009). What makes narcissists bloom? A framework for research on the etiology and development of narcissism.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1(4), 1233-1247.

* 논문접수 2017년 5월 8일 / 1차 심사 2017년 6월 9일 / 게재승인 2017년 6월 22일

* 김혜원: 세명대학교 교양과정부 조교수. 이대 심리학과에서 상담심리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 E-mail: wisdombase@hanmail.net

* 이지연: 인천대학교 창의인재개발학과 교수. 이대 심리학과에서 상담심리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 E-mail: becoming@incheon.ac.kr

Abstract

A Structural Analysis of Covert Narcissism, Aggression, Social Anxiety and Facebook Addiction of Adolescents

Kim, Hye-weon*

Lee, Jee-yon**

The present study aimed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and social anxie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facebook addiction of youth.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345 high school students, and were analyz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main research findings were as follow: First, when higher scores on covert narcissism were associated with increased aggression scores and higher level of social anxiety were found. Study has shown that higher scores on aggression were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facebook addiction. Moreover, higher scores on social anxiety were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facebook addiction. Second, (increased) aggression scores were found to significantly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facebook addiction. And (increased) social anxiety scores were found to significantly mediate the association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facebook addiction. The result of the present study suggested that covert narcissism by itself is not a significant predictor for facebook addiction, but that aggression and social anxiety are linkage between them.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covert narcissism, aggression, social anxiety, facebook addiction, mediational effect

* First Author, Assistant Professor, Semyung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Incheon National University